고고학으로 본 신라의 전북지방 진출과정

최병혀*

목 차

1. 머리말

2. 신라토기의 전개

3. 전북지방의 신라토기 편년 4. 신라의 전북지방 진출과정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신라는 삼국 통일 이전에도 호남지방으로 진출하였지만,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글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고고학자료를 통 해 우선 신라가 전북지방으로 진출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라 조기(A.D. 3세기 중엽~4세기 전엽)에는 전북지방이 영남의 신라권과 맞닿 아 있지 않았지만, 임실과 전주지역의 마한계 취락에는 신라조기양식토기가 일부 유입되고 있었다.

서기 475년 고구려의 한성 함락으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할 무렵 신라도 전북 지방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신라권의 김천과 접한 무주지역에서부터 신라고분이 조영되기 시작하였다. 신라가 한강 하류로 진출하고 낙동강을 넘어 가야세력을 통 합한 6세기 중엽 가야권이었던 호남 동부지역도 신라의 영토가 되어 진안과 남원 지역에서 신라고분이 축조되었다.

삼국 통일 이전에 전북 동부지역에서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신라고분의 분포권 은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서진하였으나, 7세기 후반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자

^{*}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E-mail: bhchoi@ssu.ac.kr

전북지방에서 신라고분은 여기저기서 동시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호남지방에서는 신라계 유적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그 발굴조사가 미미하지 만, 균형잡힌 지역사 정립을 위해서는 신라계 유적의 발굴조사와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한다.

주제어: 신라토기, 가야토기, 신라고분, 가야고분, 전북지방

1. 머리말

호남지방은 원래 마한의 '국'들이 소재하였던 곳이고,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이들을 통합하였다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1980년 대부터 호남 동부지역에서 가야계 고분들이 조사되기 시작하여(곽장근 1999), 이제는 신라가 낙동강 이서의 가야세력을 통합하는 서기 6세기 중엽까지 이곳에서도 가야의 고분문화가 전개된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고고학과 고대사 학계에서는 이곳에 소재하였던 가야세력의 성격,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제 세력들의 관계와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고대국가 신라는 경주지역에서 성장한 사로국이 진한의 '국'들을 통합하여 성립하였으므로, 그 초기의 활동 무대는 영남지방이었다. 그러나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각축을 벌리는 가운데, 국력을 신장한 신라는 중부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윽고 삼국을 통일하여 한반도의 패자가 되었다. 하지만 호남지방에서 신라문화가 전개된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삼국통일 이전 신라의 호남지방 진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물론 그동안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유적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무주 대차리에서 신라고분군이 조사되어(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0) 이제 논의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본고에서는 경주에서 일어난 신라가 어떤 과정으로 호남의 전북지방으로 진출하였는지를 고고학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전북지방에서 출토된 신라계 고고학자료의 시 간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신라토기를 중심으로 경주를 비롯 한 영남지방에서 신라의 고고학적 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간략히 통시 적으로 살피고, 그에 비추어 전북지방 출토 신라토기의 편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를 따라 신라의 전북지방 진출과정과 그 고고학적 문화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라의 중심지가 된 경주지역에서는 원삼국(사로국)시기 이래로 토기양식과 고분의 묘제가 시기에 따라 함께 변화되었다(최병현 2021). 원삼국시기 영남지 방에서는 와질토기가 전개되었다. 와질토기는 원삼국 전기의 고식와질토기와 후기의 신식와질토기로 구분되며, 원삼국 전기의 목관묘와 후기의 목곽묘에 부장되었다. 고식과 신식의 와질토기는 사로국이 성장한 경주지역을 포함하여 원삼국시기 영남지방의 공통양식 토기였다.

이어 서기 3세기 중엽 진한 사로국과 변한 구야국이 성장해온 경주와 김해지역에서는 새로운 토기양식이 성립하였다. 이른 바 '와질토기론'에서는 이 토기군을 '고식도질토기'라고 규정하였지만, 필자는 이 새로운 토기군을 경주지역에서 신라조기양식토기, 김해지역에서 가야조기양식토기가 성립한 것으로본다. 경주지역에서 신라조기양식토기는 이혈·동혈의 주부곽식목곽묘의 출현과 함께 성립하였다. 신라토기는 그 뒤 시기에 따라 신라전기양식토기, 신라후기양식토기, 나말여초양식토기로 양식이 전환되었고, 경주에서 신라전기양식토기는 신라 전기의 적석목곽분, 신라후기양식토기는 신라 후기의 횡혈식 석실봉토분의 출현이나 채용과 함께 성립되었다(최병현 2021a).

이상과 같이 경주지역에서 각 시기마다 성립한 신라토기는 경주지역의 중심 묘제 출현과 연동한 것이었으며, 각 시기 신라토기를 부장한 고분이 중앙인 경주와 지방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신라토기는 지역 간 교류와 교역을 통해 원거리 지역으로 소수 이동되기도 하였지만, 신라토기가 부장된 고분문화가 전개된 지역은 신라의 지방지배, 즉 신라가 진출한 정치적 영역-권역으로 이해 된다.

2. 신라토기의 전개

1) 신라조기양식토기(3세기 중엽~4세기 전엽)

영남지방에서는 원삼국 전기의 고식와질토기(B.C. 100~A.D. 2세기 전엽), 원삼국 후기의 신식와질토기(A.D. 2세기 중엽~3세기 전엽)에 이어 서기 3세기 중엽 새로운 토기군이 성립하였다. 이 토기군을 과거 김원룡은 '신라토기 조 기'라고 하였고(김원룡 1979), 와질토기론에서는 '고식도질토기'라고 규정하였 다(최종규 1982).

와질토기론에서는 이 '고식도질토기'를 당초 원삼국시기의 와질토기와 마찬 가지로 지역차가 없는 영남지방의 공통양식 토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지역차가 인지되기 시작하여(안재호·송계현 1986), 공통양식 하의 지역색론으로 논의되다가(최병현 2012: 108) 고식도질토기 지역양식론으로 발전하였다. 안재호는 고식도질토기의 지역상을 부산·김해식과 경주·함안식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지역상은 양식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양식인 고식도질토기 하의 지역색이라고 하였다(부산대학교박물관 1993: 248~253)가 그후 이를 다시 '고식도질토기 낙동강 하구양식'과 '고식도질토기 내륙양식'으로 개명하였다 (안재호 2000: 82).

그런데 와질토기론에서는 고식도질토기가 원삼국을 지나 삼국시대 토기라고 하였지만, 실제의 토기 편년에서 고식도질토기와 공반하는 와질 기종의 토기들은 삼한 후기 토기로 편년되었고(안재호 1994; 이성주 1999), '낙동강 하구양식'과 '내륙양식'의 발생 중심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즉 안재호의 고식도질토기 2대양식론은 영남지방의 원삼국~삼국시대 토기연구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지만, 이를 발생 중심지가 분명한 진정한 삼국시대의 토기양식으로 인지해 내지는 못한 것이다.

이에 박천수는 안재호의 2대 지역양식론을 곡해하여 영남지방의 3~4세기 토기, 즉 고식도질토기를 '금관가야양식'과 '아라가야양식'으로 나누고, 영남 내륙은 물론 경주지역의 토기도 '아라가야양식'이 퍼져나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박천수 2000), 정주희는 박천수의 '금관가야양식'을 김해양식으로, '아라가야양식'을 함안양식으로 이름만 바꾸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정주희 2009).

고식도질토기의 지역양식론은 고식도질토기를 삼국시대 토기가 아니라 특정 정치체와 관련된 발생 중심지가 없는 원삼국토기의 연장으로 보는 발상인데,여기에 '금관가야'와 '아라가야'를 갖다 붙인 것은 이를 곡해하여 내륙양식의 발생 중심지를 함안의 '아라가야'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김해지역의 '금관가야'양식'보다도 훨씬 더 광역에 확산된 토기양식이 성립하려면 그 발생 중심지에는 김해지역의 '금관가야'를 능가하는 강력한 정치체가 성립되어 있어야한다.

하지만 함안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원삼국 후기의 신식와질토기에 이어 고식 도질토기 시기에 중심지가 분명한 특정 토기양식을 출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치체가 성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수장층의 대형 목곽묘가 조사된 바 없다. 고 식도질토기 단계에 영남지방에서 그러한 수장층의 존재를 알려주는 대형 목곽 묘가 조사된 곳은 경주와 김해지역 뿐이다. 그러므로 '낙동강 하구양식'이 중심지가 김해지역인 '금관가야(조기)양식'은 될 수는 있어도 '내륙양식'이 중심지가 함안지역인 '아라가야양식'이나 '함안양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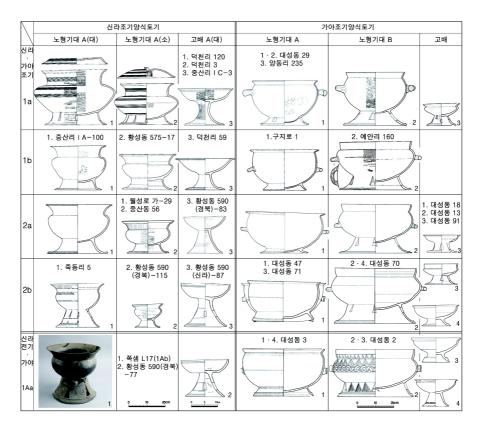


그림 1. 신라조기양식토기와 가야조기양식토기의 전개

그런데 안재호의 낙동강 하구양식은 파수부노형기대와 외절구연고배, 내륙양식은 무파수노형기대와 통형고배를 표지로 한다(그림 1). 파수부노형기대는 서기 3세기 중엽경 분명히 김해지역에서 발생하여 부산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무파수노형기대는 서기 3세기 중엽 경주지역에서 발생하여 인접지역에서부터 시차를 두고 낙동강 이동과 이서로 확산되었다. 통형고배는 함안지역에서 다수 출토되어 그곳이 중심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낙동강 하구를 제외한 영남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경주에서도 출토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시원형은 경주에 존재하였다(그림 2). 통형고배 역시 경주에서 발생하여 영남 각지로 확산되어 나간 과정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최병현 2018).



그림 2. 신라 조기의 통형고배(각지 출토)

한편 신경철은 김해 대성동 29호묘 출토 경질의 양이부원저단경호를 들어 김해지역에서 '도질토기'가 처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천수와 정주 희는 김해와 함안지역이 영남지방에서 도질토기 발생의 양대 중심지였으며, 경주에서는 와질토기 생산체제가 늦게까지 유지되어 도질토기의 생산이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김해 대성동 29호묘에서 소형의 양이부원저단경호가 부장될 무렵 경주 황성동 유적에서는 복원 높이 1m에 이르는 경(도)질 대호가 부장되고 있었고,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 안에 위치한 월성로고분의 신라 조기고분 부장토기는 대부분

이 경(도)질토기이다. 그리고 함안지역에서 고식도질토기의 시작 단계는 편년 부터 문제가 있다. 함안지역에서는 1(a, b)기와 2(a, b)기로 나누어지는 경주와 김해지역보다 늦어 2a기에 들어가서야 고식도질토기 단계가 시작되었다(최병 현 2021b).

서기 3세기 중엽 경주지역에서 새로운 토기양식의 성립은 이혈·동혈의 주부곽식목곽묘의 출현과 연동하였다. 이 새로운 양식의 토기는 주로 주부곽식목곽묘 중 이혈주부곽식보다 하위인 동혈주부곽식의 세장방형 목곽묘와 함께지방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또 지방의 동혈주부곽식 세장방형 목곽묘에는 경주에서 발생하여 퍼져나간 유자이기, 궐수형장식철모, 판상철모 등의 의례용철기가 신라조기양식토기와 함께 부장되었다. 경주와 동질적이면서도 격차가 있는 고분문화가 지방에서 전개되어 나간 것이다(최병현 2018).

필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사로국에서 고대국가로 탈바꿈한 신라가 지방을 지배해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원삼국 후기의 신식와질토기 다음으로 서기 3세기 중엽 경주지역에서 성립한 새로운 토기군을 신라조기양식토기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김해지역에서 성립한 새로운 토기군도 가야조기양식토기로 규정하였다(최병현 2012). 고식도질토기는 당초 삼국시대 토기로 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는 원삼국토기의 연장으로 이해되었다. 고식도질토기는 단지 토기질을 표현할 뿐이기 때문이다. 발생지가 분명한 삼국시대 토기는 시대적, 역사적 함의가 담긴 양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신라·가야조기양식토기의 성립은 신식와질토기 이래의 대부직구호의 문양대가 종방향에서 횡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며, 이와 동시에 경주지역에서는 무파수노형기대, 김해지역에서는 파수부노형기대가 출현하였다. 이는 와질토기론의 신식와질토기로부터 고식도질토기로의 전환 기점과도 같다(신경철 2012 : 여희진 2019). 그러나 고식도질토기의 하한과 신라·가야조기양식토기의 하한은 차이가 있다. 고식도질토기에는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과 부산 복천동 21·22호묘의 3단각고배 출현 이전 단계의 토기까지를 포함한다. 즉 경주 월성로 가-5, 6호묘 단계까지의 신라 4단각 투창고배, 김해대성동 3, 2, 1호묘 단계까지의 출현기 가야 투창고배까지를 고식도질토기라고 한다. 그러나 경주지역의 4단각 투창고배, 김해지역의 출현기 투창고배는

건 편기 B) – 22	12	2
배 B1/B2 互	0 0 6 8 8 8 8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6. 광생동 7/5~37 7. 11 행성은 7/2~37 8. 광성동 7/5~15 10 구에의 1 12 숙성된 56 13 대선된 66	P	
년 (H)	1. 황성용 2년 19 2. 대한민 39 2. 대한민 39 6. 대한민 30 6. 대한민 20 7. 대한민 120 7. 대한민 120 9. 황성종 2년 표 3 10. 대. 홍산리 10-3 11. 역천민 56 11. 영산민 13 10. 대. 홍산리 11-3		01	0.
바		1. 환성용 (국박) 2. 대한의 46 3. 대한의 46 4. 대한의 37 5. 중산의 IA-100	5	0
바탕		01		8
소문경질 단경호		6		
타날문단경호		8		9
대부단경호	8	,	6	
노형기대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 , , , , , , , , , , , , , , , , , ,	3
노형토기		3	1. 學校 55 54 5(3 子山) — 1. 學校 55 54 5(3 子山) — 1. 學校 55 5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1. 황성종 550(경복) -62 2. 9 사라리 52 3. 숙종의 1 5. 6. 축종의 1 5. 6. 축종의 1 8. 발성도 7~8 10. 황성종 550(신라) -87 11. 황성종 550(신라) -87 11. 황성종 550(신라) -67 12. 황성종 550(신라) -67 12. 황성종 550(신라) -67
편구형 대부 직구호 (소B)	of the state of th	2	2	
대부직구호				
	<u>e</u>	10	2a	2b

그림 3. 경주지역의 신라조기양식토기 편년표

새로운 토기양식의 성립을 말해줌으로, 신라조기양식토기와 가야조기양식토기 를 이어 새로 출현한 신라전기양식토기와 가야양식토기로 규정되어야 한다.

신라조기양식토기는 신식와질토기에 비해 기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모두 2기-4소기로 편년된다(그림 3). 신라조기양식토기는 원삼국 후기의 신식 와질토기와 신라전기양식토기 사이의 토기군이므로, 이른 단계에는 연(와)질 의 토기도 아직 많이 남아있었지만 점차 경(도)질토기의 비율이 확대되어 갔 으며, 특히 경질의 각종 호류가 다수 출현하였다.

신라조기양식토기는 대구 이남, 진주-합천 삼가 이동을 분포지로 하였으며, 1a기에 포항과 울산, 1b기에는 경산, 대구지역까지 확산되었으나, 낙동강 이동과 이서의 연안지역에서는 대체로 2a기에 들어와 신라조기양식토기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최병현 2018). 신라조기양식토기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방각지에서는 지역양식이 성립하였으며, 함안지역의 특징적인 노형기대는 2b기에 성립하였고, 이 지역에서 통형고배의 출현도 노형기대의 성립과 함께 한것으로 판단된다(최병현 2021b).

2) 신라전기양식토기(4세기 중엽~6세기 전엽)

신라전기양식토기는 신라의 왕도 경주의 중심고분군에서 적석목곽분이 축조된 시기의 토기군이다. 신라전기양식토기는 나팔형 대각에 교차투창이 뚫린고배와 긴 목의 장경호가 표지적이며, 과거의 고신라토기, 낙동강 이동(동안)양식 토기에 해당하지만, 그 출현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과거의 고신라토기와 낙동강 이동양식 토기는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 출토 3단각고배부터를 그 시작으로 하였지만, 그에 앞서 4단각고배 단계가 존재하였음이 새로 밝혀졌고, 장경호도 그와 함께 출현한 것으로 드러나, 신라전기양식토기는 이를 포함한다(최병현 2013). 신라전기양식토기의 하한은 서기 553년 창건 경주 황룡사지 발굴에서 드러난 단각고배의 성립에 앞선 6세기 전엽까지이다(최병현 2014).

신라전기양식토기는 고배를 중심으로 성립기에 포함되는 4단각 단계(1A기) 와 3단각 단계(1B기)를 지나 2단각 단계의 정형화기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소기를 합하여 모두 4기-11소기로 상대편년된다(그림 4). 신라전기양식토기에서는 회청색 경질토기가 일반화되어, 경주에서는 물론 지방에서도 고분군의 차별 없이 회청색경질토기가 널리 부장된 것이 신라조기양식토기와 큰 차이점이다.

경주지역에서 신라전기양식토기가 성립할 무렵 김해지역에서도 가야조기양 식토기에서 가야양식토기로 전환되었다. 가야양식토기는 곡선적인 대각에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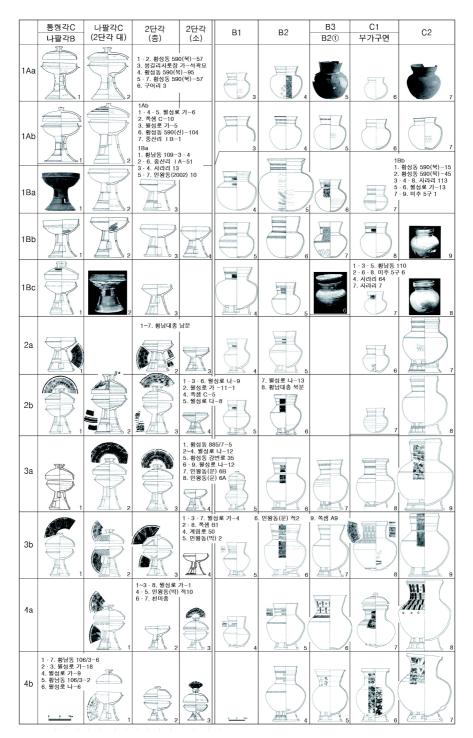


그림 4. 경주지역의 신라전기양식토기 편년표

렬투창이 뚫린 고배와 경부가 길게 외반하여 올라가는 유개식 장경호가 표지적인 기종이다. 출현기(1A기)의 신라전기양식토기와 가야양식토기는 각각 경주와 김해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신라전기양식토기 고배가 3단각으로 변화될 무렵(1B기)부터 각각 지방으로 확산되어 나갔다(최병현 2021b). 그러나 신라전기양식토기는 가야산 이남에서는 낙동강에서 막혀 낙동강 이동지방에서 전개되었고, 원래 신라조기양식토기의 분포권이었던 낙동강 이서지방은 가야토기의 분포권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낙동강 이동에서는 낙동강 이동양식신라토기, 이서에서는 낙동강 이서양식 가야토기가 성립되어 전개되었다. 이와같이 낙동강이 토기양식의 분포 경계선이 된 것은 당시의 정치적 격변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경주의 월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분이 축조되고 신라전기양식토기가 부장된 시기는 역사적으로 신라의 마립간시기였으며, 거대 고총과 금관·금제허리띠장식으로 상징되는 금공위세품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방에서도 신라전기양식토기가 부장된 신라의 고총이 축조되었다. 지방의 고총주는 금동관과 은제허리띠장식 등 경주와는 격차가 있는 신라식의 장신구를 착장하여, 신라가 지방의 고총주를 통해 지방을 간접지배하던 양상을 보여준다. 이때 각 지역에서는 부산양식, 경산양식, 의성양식, 성주양식 등의 신라전기양식토기 지역양식이 성립되었다. 낙동강 이동양식은 이 지역양식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3) 신라후기양식토기(6세기 중엽~8세기 중엽)

신라후기양식토기는 신라의 최고 지배자 집단이 경주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 주변 산지에 횡혈식의 석실봉토분을 축조한 시기의 토기양식이다(그림 5). 과거의 통일신라토기, 통일양식토기, 또는 인화문토기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신라토기의 양식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바뀌었다고 보아 그 이전은 고신라토기, 이후는 통일신라토기라 하였지만, 경주 황룡사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토기의 양식 전환과 경주에서 신라 최고 지배자 집단의 묘제 교체가 삼국통일보다 100년 앞서 6세기 중엽에 일어난 사실이 밝혀졌다(최병현 1984). 이에 필자는 신라토기의 양식이 삼국통일이라는 정치적 기점과 관계없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고신라토기를 신라전기양식토기, 통일신라토기를 신라후 기양식토기로 재규정하였다(최병현 1987). 학계에는 필자의 신라후기양식토기를 중기양식과 후기양식(山本孝文 2007; 윤상덕 2010), 또는 후기양식과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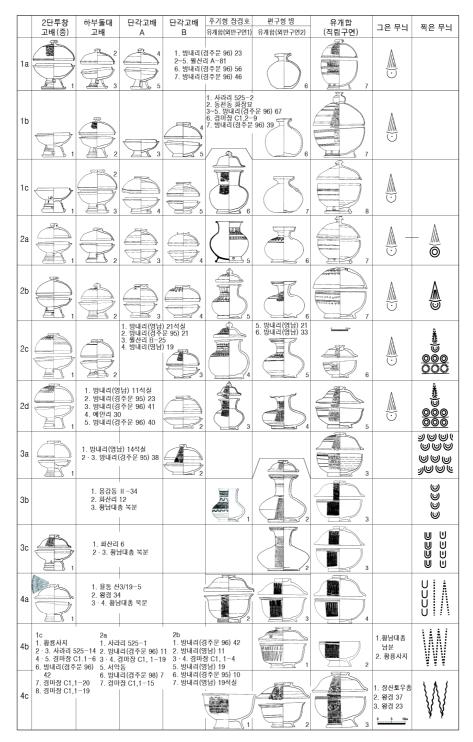


그림 5. 경주지역의 신라후기양식토기 편년표

양식(홍보식 2000)으로 나누는 이설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는 각각 신라전기양식토기에서 신라후기양식토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따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토기 양식의 전환에는 언제나 과도기가 있고, 그 과도기는 이미 신양식이 출현해 있는 시기이므로 신양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라후기양식토기는 대각이 급격히 짧아진 단각고배,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유개합의 성립으로 시작되었는데, 단각고배와 대형 유개합의 출현은 신라의 불교 공인과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각고배는 굽이 낮은 금속제 佛器의 영향으로, 골호로 쓰일 수 있는 대형 유개합은 불교의 화장과 관련하 여 출현하였을 것이다.

신라후기양식토기에서는 문양을 미리 새겨놓은 도장과 같은 시문구로 찍어 낸 인화문이 크게 성행하였는데, 신라전기양식토기에서 대칼이나 컴파스로 그 어낸 단위문양을 그대로 미리 새겨놓은 시문구로 찍어 낸 단위문양 시문단계 와 단위문양을 여러 단 연결하여 새긴 시문구를 반복적으로 찍어 문양대를 구 성한 문양대 시문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단위문양 시문단계에는 신라전기양식 토기에서 변화된 단각고배와 부가구연장경호가 크게 성행하여, 이를 단각고배 단계라 구분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문양대 시문은 대체로 통일 이후의 토기 들에 베풀어졌다.

신라후기양식토기가 사용된 시기는 역사상 대체로 신라의 중고기와 중대에 해당한다. 신라는 중고기에 들어올 무렵 이미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을 직접 지배하기 시작하였으며, 6세기 중엽에는 중부지방으로 진출하고 낙동강 이서의 가야제국을 통합하였다. 신라가 진출한 지역 곳곳에는 신라고분군이 조영되어, 단각고배와 부가구연장경호가 매납된 봉토분들이 축조되었다. 삼국통일이후 지방에는 소규모의 석곽묘들이 축조되었으며, 석곽묘들에서는 문양대가시문된 인화문토기가 출토된다.

신라후기양식토기는 1a~4c기까지 모두 4기-13소기로 편년되며, 2a기부터 찍은무늬, 즉 인화문이 시문되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변화・발전하였다(최병현 2011). 이에 인화문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 왔으나(宮川禎一1988; 李東憲, 2008), 기형의 변화와 무늬의 변화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특히 단위문양 단계는 무늬만으로 편년하기 어렵다. 또 경주와 지방의 토기 사이에는 무늬의 종류와 진행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4) 나말여초양식토기(8세기 중엽~)

신라토기는 서기 8세기 중엽부터 인화문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8세기 후엽에는 무문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주름무늬병, 종형 뚜껑, 반구병과 각종 편호등 새로운 기종이 출현하였다. 신라토기가 신라후기양식토기에서 나말여초양식토기로 전환된 것이다(변영환 2007). 그러나 이때부터 경주지역에서도 왕릉외에는 고분이 거의 축조되지 않았으며, 지방에서는 사실상 토기가 매납된 고분을 찾기 어렵다. 경주의 신라 왕경유적, 안압지, 절터 등에서 많은 나말여초

표 1. 신라토기와 신라고분의 분기 · 편년표

9	ᅽ대	원삼국 · 신라토기				원삼국 · 신라고분	한국 고대고분 전개
ВС	100		17				
		고식와질토기	27		a b		1단계 : 고분의 출현 ㅡ 저봉토묘ㆍ저분구묘
			37		a b	원삼국(사로국) 전기 : 목관묘	
			47		a b		
AD	150	신식와질토기 신라조기양식토기	17		a b	원삼국(사로국) 후기 : 목곽묘	
	250		27		a b a		
			17		b a	신라 조기 : 주부곽식 목곽묘 (점토충전 . 석재충전)	2단계 : 대형분(묘)의 성립
	350		2	기 1A기	b a		
		신라전기양식토기	1기	1B7	b a b		3단계 : 고총의 등장 — 고총 1기
			2	271	C a		
	450		37	b a	신라 전기 : 적석목곽분	_5	
	550 650		47			a b	
		신라후기양식토기	17		a b	신라 후기 : 석실봉토분	
			27		a b		4단계 : 고총의 쇠퇴 ㅡ 고총 2기
					c d		
			37		a b c		5단계 : 고분의 쇠퇴
			47		a b c		
	750	나말여초양식토기	<u> </u>				6단계 : 고분의 소멸

양식토기가 출토되었으나 모두 야외유적이어서 토기의 계기적인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편년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이에 필자는 그 편년을 유보하고 있 는데, 경주의 화곡리 생산유적, 지방에서는 보령 진죽리요지와 안성 조일리요 지, 영암 구림리요지 등 토기요지들이 발굴되어 앞으로 이 유적들의 출토 토 기들을 통해 편년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말여초양식토기 는 10세기 어느 시점부터 중국에서 유래된 초기청자·백자와 공존하면서 고려 도기로 발전되어 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은 이상에서 살펴본 신라토기의 양식변화와 편년을 종합한 것이다.

3. 전북지방의 신라토기 편년

1) 신라조기양식토기

전북지방에서는 임실(군산대학교박물관 2011;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과 전주(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지역의 주거지들에서 신라조기양식토기로 보이는 영남계 토기가 출토되었다(그림 6). 이들은 대개 낙동강 이서지방의 신라조기양식토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임실 도인리 19호 주거지에서 경질의 타날문 구형단경호들과 함께 연(와)질로 보이는 나팔형의 대각이 출토되었다. 형태상으로는 합천 옥전 66호묘 출토신라조기양식토기 2b기의 무개식 나팔각고배의 대각과 유사하지만, 크기로 보아서는 낙동강 연안의 유개대부호, 또는 무파수 노형기대의 대각으로 판단된다. 삼각형의 소투공이 뚫린 단순한 구조 형태로 보아 신라조기양식토기 2b기이하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실 도인리 14호 주거지에서는 경질의 소문 단경호와 함께 연(와)질의 통형 대각이 출토되었다. 대각의 형태는 신라조기양식토기 2a기의 합천 옥전 6호묘 출토 유개식 통형고배의 대각과 유사하지만, 크기로 보아 기대의 대각으로 보인다. 대각에 삼각형 투공의 규칙적인 배치로 보아 신라조기양식토기 2b기에 편년될 것으로 판단된다.

임실 석두리 Ⅲ-34호 주거지에서는 무개식 배신의 통형고배와 넓은 직경의 와질 대각이 출토되었다. 낙동강 이서지방에서 출토되는 신라 조기의 고배는 배신의 형태로 구분하여 무개식과 유개식, 대각의 형태로 구분하여 나팔각과 통형각으로 구분되며, 모두 대각이 단각에서 장각으로 변화하였다(그림 7).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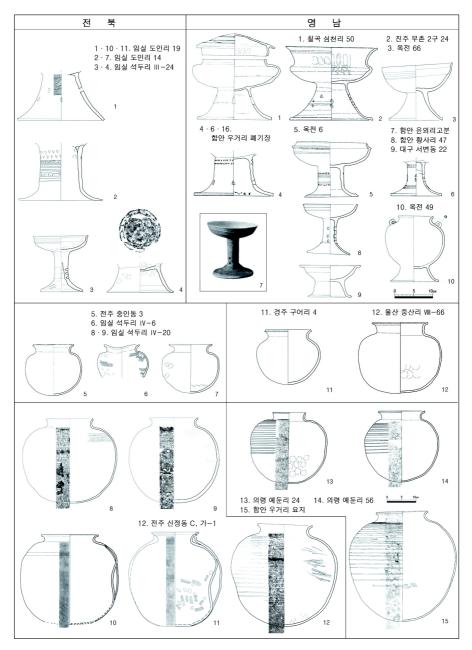


그림 6. 전북지방 출토 신라조기양식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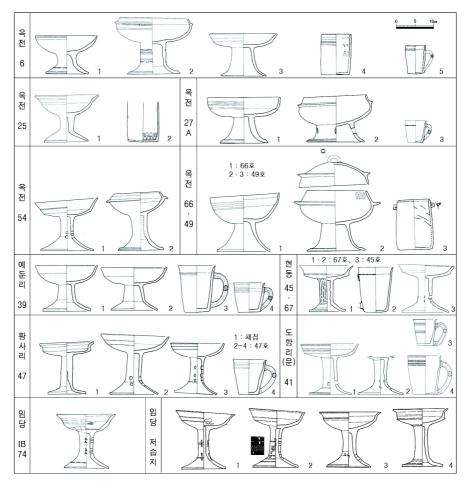


그림 7. 합천 옥전고분군과 영남지방 신라 조기 고배

두리 Ⅲ-34호 주거지의 통형고배는 무개식 장각형으로, 함안 윤외리고분과 황사리 47호묘에서 출토된 통형고배와 유사하다. 신라조기양식토기 통형고배이지만 배신의 구연단이 외반한 점, 대각에 원형투공 3개가 일렬로 배치된 점으로 보아 그 시기는 신라 전기 1Aa기로 내려오는 형식이다. 공반된 와질 대각은 대구 서변동유적 등에서 출토되는 변형 고배나 대부완의 대각, 또는 장각화한 대부직구호의 대각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조기양식토기 2b기 이후로 편년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경호에는 소문의 경질토기 편구형단경호와 그보다 규모가 큰 경질토기 타 날문 구형단경호가 있다. 소문의 경질 편구형단경호는 전주 중인동 3호 주거 지, 임실 석두리 IV-6호 주거지와 도인리 14호 주거지에 출토되었는데, 짧은 경부에서 구연부가 점차 심하게 외반되어 가고 어깨도 차례로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라조기양식토기 2b기나 신라 전기 1Aa기로 편년된다.

타날문 구형단경호도 임실과 전주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석두리 IV-20호 주거지의 구경부가 직구에 가까운 단경호가 상대적으로 이른 형식으로 신라조기양식토기 2a기로 편년될 수 있지만, 동체가 완전 구형화 하였고, 어깨에 양이가 붙지 않아 함안 도항리(문) 35호와 도항리(경) 33호 목곽묘 단경호보다는 늦은 형식이다. 그 외는 구경부 단면이 모두 C자형으로 외반하는 형식으로, 동체가 상하로 깊어지고 타날문에 두른 횡침선 간격도 아래로 내려오며 넓어진도인리 19호 주거지, 전주 신정동 C유적 가-1호 주거지 출토 단경호가 가장늦은 형식이다. 그러나 모두 신라 전기 1Aa기를 더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다.

2) 신라전기양식토기

전북지방에서 신라 전기의 고분군이 발굴조사된 곳으로는 현재 무주 대차리 고분군(군산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2020)이 유일하다. 대차리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들보다 앞선 신라전기양식토기는 장수 삼고리 3-1곽에서 출토된 고배(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와 장수 봉서리 1호 석곽에서 출토된 대부장경호(전북대학교박물관 2001)가 있다.

장수 삼고리 3-1곽에서는 가야토기 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등과 함께 신라계 교차투창 3단각의 유개식고배 1점이 공반되었다. 가야토기 고배와 발형기대는 5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고령 지산동 32호분·33호분 단계(이희준 2017 : 81~98)와 같은 시기 형식으로 보인다. 공반된 신라계 3단각고배는 낙동강 이동의 지역양식으로 판단되며 배신과 대각의 형태로 보아 창녕 교동 3호분 이전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녕 교동 3호분은 신라전기양식토기 2b기이다(최병현 2014).

장수 봉서리 1호 석곽에서 출토된 대부장경호도 대각의 형태 등으로 보아역시 낙동강 이동의 지역양식으로 보이며, 이 장경호는 돌대를 배치하여 여러단으로 나눈 직선적인 경부, 상하로 깊어진 동체가 특징으로 신라전기양식토기 2b기 이전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형식이다.

이외에 진안 황산리고분군에서도 신라계 대부장경호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황산리고분군에서 신라계 장경호는 대개 늦은 시기의 석곽묘에서 가야토기들 과 공반되어(군산대학교박물관 2001), 대차리고분군 출토 토기보다 이르지 않다. 무주 대차리고분군에서는 10여기의 신라 석곽묘가 발굴되었다. 그러므로 전 북지방의 신라전기양식토기는 일단 대차리고분군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편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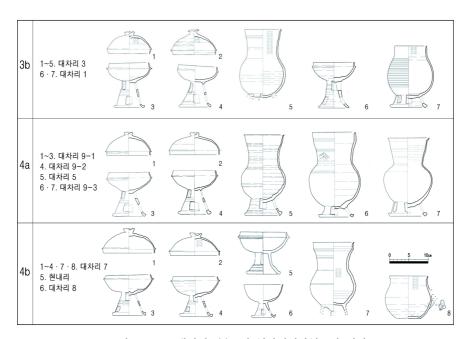


그림 8. 무주 대차리고분군의 신라전기양식토기 편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대차리 석곽묘 중에서는 3호와 1호 석곽묘 출토 토기가 가장 이른 형식으로 편년된다. 3호 석곽묘의 2단각고배들은 대각이 아직 높고 배신의 구연부가 길게 뻗었다. 단추형 꼭지가 붙은 뚜껑도 높고 기벽이 둥글며 배신의 구연부를 덮는 드림부도 길게 뻗은 것이 특징이다. 경주지역의 신라전기양식토기 2단각고배(중) 계열로 3b기로 편년된다. 1호 석곽묘 출토 2 단각고배는 지역양식으로 경주토기와 비교가 어렵지만, 공반된 대부 첩형토기는 경주지역의 3b기 형식에 가깝다.

대차리 9-1, 2, 3호 석곽묘 및 5호 석곽묘 출토 토기들이 그 다음 단계 형식으로 편년된다. 2단각고배들은 낮아진 대각의 상하 직경 차이가 늘어나 저경이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미세하지만 뚜껑이 조금 납작해진 변화를 보인다. 장경호도 앞 단계에 비해 작아진 동체에서 경부가 길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전기양식토기 4a기로 편년된다.

대차리 7호와 8호 석곽묘 출토 토기가 그 다음 단계의 토기들이다. 2단각고

배들의 대각 형태가 앞 단계와 같으나 둥근 배신에서 구연부가 짧게 내경하였으며, 뚜껑이 더 납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7호 석곽묘의 장경호를 9-3호 석곽묘의 장경호와 비교해 보면 왜소해진 동체의 중간이 각진 점, 경부 상단이심하게 벌어져 올라간 점이 확인된다. 7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컵형토기는 신라후기양식토기 1a기 형식에 가깝지만 2단각고배는 신라전기양식토기 2단각고배(중) 계열의 4b기 형식이며, 8호 석곽묘 출토 무개식고배도 신라전기양식토기 4b기로 편년된다.

무주 현내리고분에서 출토된 대각하부돌대 유개식고배도 돌대가 2줄인 4b 기 형식이다.

3) 신라후기양식토기

무주 대차리 6호 석곽묘 출토 토기는 아직 단각고배가 포함되지 않았고, 2 단각고배(대)의 대각, 2단각고배(중), 무개식고배의 배신은 고배 뚜껑과 함께 신라전기양식토기의 연장이지만 그 시기는 신라후기양식토기 1a기로 편년된다. 저부만 남은 낮은 대각의 대부완은 신라후기양식토기에 들어와 장골용 대형 유개합과 함께 출현한 기종이다(최병현 2021b).

전북지방에서 신라후기양식토기 중 단각고배 단계의 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진안 삼락리 승금유적과 남원지역의 산성 및 고분들이다(그림 9). 그 중에서는 승금 B-1호 석곽묘(전북대학교박물관 2001)와 남원 봉대리 2호 석곽묘(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출토 토기가 가장 이르게 편년된다. 두 고분에서 모두 신라후기양식토기 1b기 형식의 단각고배(A)와 평저병이 출토되었는데, 봉대리 2호석곽묘 출토 단각고배는 높은 대각의 형태로 보아 신라후기양식토기 1b기 형식의 단각고배(A)를 모델로 하여 제작된 것이지만, 승금 B-1호 석곽묘 고배에비해 현지화가 더 진행된 것이다.

남원 아막성 출토 2단각고배(중)과 대각하부돌대 (무개식?)고배 대각(군산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2020)은 신라후기양식토기 1c기의 형식이다. 승금 C-1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단각고배(A)와 컵형토기, 남원 두락리 2호 석실묘 출토고배 뚜껑(전북대학교박물관 1989)도 신라후기양식토기 1c기로 편년된다. 단각고배(A)의 대각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고, 뚜껑은 드림부가 짧고 끝이 둥근것이 특징이다. 컵형토기는 현지화 된 것이다.

횡구식석곽묘인 승금 B-1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단각고배(B)와 컵형토기는 신라후기양식토기 2a로 편년된다. 승금 B-1호 석곽묘 출토 컵형토기는 승금 C-1호 출토 컵형토기에 비해 동체의 기벽 단면이 직선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과 공반된 장경호도 구연부 형식을 알 수 없지만 동체와 대각의 형태로 보아 2a기 형식의 부가구연장경호로 판단된다. 남원 아막성 출토 병의 구경부는 남원 봉대리 2호 석곽묘 평저병에 비해 구경부가 좀 더 길어진 것이다.



그림 9. 전북지방의 신라후기양식토기 편년(1)

그 외 승금유적 채집 토기 중에서는 고배 대각편과 부가구연장경호편이 있는데, 고배 대각편은 신라후기양식토기 2b기나 2c기의 무개식고배 대각으로 보이고, 부가구연장경호는 동일 개체인지 알 수 없지만, 경부 상단과 구연부가심하게 외반하는 구경부 형태, 단면 능형화한 동체와 소투공이 뚫린 짧은 대각으로 보아 신라후기양식토기 2d기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된다.

남원 북천리고분에서 출토된 대부완(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은 경주에서는 찾아지지 않아 현지화 된 기종으로 판단되는데, 하부에 돌대가 돌아간 대각의 형태는 대체로 신라후기양식토기 2b기 이후의 무개식고배 대각과 유사하다.

다음 3기 이후의 신라후기양식토기(그림 10) 중에서는 남원 월평리 수월유

		·	I		
	고 배	유개합(소2)	유개합(중)	외반구연 합	편구형 병
	유개합(소1)	11711 (122)	유개합(대)	70100	2100
신라 후기 3a	1	1~3. 남원 월평리 수월 6구역	2		3
3b	-			1. 고창 부곡리 2. 군산 축산리 계남 2-1 3. 완주 운교 1	3
3c		1	3	1. 군산 축산리 계남 2-2 2. 군산 축산리 계남 2-3 3. 군산 축산리 계남 2-1 4. 전주 원만성 1/1-3	4
4a	1. 익산 서두리 7 2. 전주 원만성 IV-1	3. 전안 평지리 2 4. 진안 평지리 3		4	5. 순창 창신리 3-2
4b		2	1. 진안 평지리 2 2~4. 군산 도암리 20	3	
4c	1 · 2 · 4 · 5. 진안 평지리 2		3. 전주 중인동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5
나말 여초		1 · 2. 전주 중인동 1		0 5 10-5	2

그림 10. 전북지방의 신라후기양식토기 편년(2)

적 석곽묘 출토 토기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고배는 돌대로 덮인 대각, 퇴화된 구연부 형태로 보아 2기 이전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형식이다. 뚜껑은 높고 기벽이 전체적으로 둥글어 원래 유개합(중) 계열의 뚜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드림부 안쪽에 안턱이 붙지 않은 것은 지방의 변형이라 판단된다. 공반된 편구형 대부병은 최대경이 동 중앙에 있는 편구형 동체도 늦지 않은 형태이고, 문양도 찍은 삼각문과 찍은 2중원문으로 이른 시기의 문양구성이지

만, 가늘고 길게 올라간 경부는 신라후기양식토기 2d기부터 나오는 형태이다. 수월유적 석곽묘는 공반된 고배의 형식으로 보아 신라후기양식토기 3a기로 편 년된다.

신라후기양식토기 직립구연 유개합은 대·중·소형으로 분류되지만, 전북지 방에서 출토된 것은 주로 소형이고, 중형은 뚜껑만, 대형은 늦은 시기 것만 소 수 찾아진다.²⁾ 소형은 기벽 상부가 직립한 것(소1)과 기벽 상부가 외반하는 것 (소2)으로 분류되며, 전자는 중앙양식에 가깝고 후자는 지방화 된 것이다.

고창 부곡리 증산유적 석곽묘(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군산 축산리 계남 2-1호 석곽묘(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완주 용흥리 운교유적 1호 석곽묘 출토 토기(호남문화재연구원 2013)가 3b기의 신라후기양식토기로 편년된다.

계남 2-2호와 3호 석곽묘 출토 유개합 합신과 뚜껑, 계남 2-1호 석곽묘 출토 토기 중 유개합(중)의 뚜껑은 3c기로 편년된다. 전주 만성동 원만성유적 1-1지점 3호 석곽묘 출토 대부병(전북문화재연구원 2018)도 이 단계 형식으로 보인다. 전주 원만성 3호 석곽 출토 대부병은 다음 단계에 배치한 순창 창신리 2호 석곽묘 출토 대부병과 거의 같은 형식이어서 그와 시차가 거의 없을 것이다.

고창 부곡리 증산유적의 유개합(소1)의 뚜껑에는 2중원문이 흩어찍기 되어 있어 시문은 3a기 방식이지만, 기형은 특히 뚜껑의 세부형태로 보아 3b기로 내려오는 형식이다. 신라후기양식토기 3b기와 3c기의 인화문은 4~5 단위의 연속마제형문이 반복하여 찍힌 문양대이지만, 전북지방의 이 단계 토기 무늬는 현지화 하여 3단위 연속마제형문이 많고 변형 수적형문도 시문되었다.

신라후기양식토기 4기는 외반구연합이 출현하여 직립구연합과 공존한 단계이고, 인화문이 종장점선문이나 종장파상문으로 변화하여 '사자형찍기' '지그재그찍기'로 문양대를 구성하였다.

익산 서두리 상갈3유적 7호 석곽묘(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전주 원만성 IV-1호 석곽묘(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진안 평지리 2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직립구연합, 평지리 3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외반구연합과 순창 창신리3유적 2호 석곽묘 출토 편구형 대부병(전북문화재연구원 2012)이 4a기로 편년된다. 인화문은 대개 종장점열문을 한줄로 연속 찍었으나, 진안 평지리 2호 석곽묘 직립구연합신과 뚜껑에 '人자형찍기'한 것이 나타난다.

진안 평지리 2호 석곽묘 출토 토기 중 종장점열문을 '스자형찍기'하였지만 뚜껑이 낮아진 직립구연합은 4b기로 편년되며, 군산 도암리 20호 석곽묘의 직

²⁾ 신라후기양식토기 3기 이후, 즉 전북지방의 통일신라기의 토기에 대해서는 이경희 (2021)의 논문이 있어 이를 많이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립구연합과 대각이 결실된 외반구연합, 대부병(전북대학교박물관·군산대학교 박물관 2001)도 이 단계로 편년된다. 도암리 20호 석곽묘의 대부병은 동체에 각이 분명해진 것이 특징이다.

평지리 2호 석곽묘의 구연부 내면이 〈자형으로 꺾인 직립구연 유개합(소1)과 기벽이 낮아지고 외반한 유개합(소2), 낮은 기벽의 외반구연합은 4c기 형식이다. 기벽이 2단 구분된 외반구연합, 전주 중인동 2호 석곽묘의 고대가 붙은합신(전북문화재연구원 2008)은 이 단계 토기의 특징이다. 평지리 2호 석곽묘출토 편구형 대부병은 직립한 긴 구경부가 이른 시기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납작해진 동체로 보아 이른 시기로 편년되기는 어렵다.3)이 단계 토기는 전체적으로 무문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주 중인동 1호 석곽묘의 유개합과 대부병은 신라후기양식토기를 지나 나 말여초양식으로 내려오는 형식이다.

4. 신라의 전북지방 진출과정

1) 신라 조기

전북지방에서 영남계 신라조기양식토기가 출토된 곳은 임실과 전주지역의 마한계 취락유적들이다. 대개 방형계 주거지들에서 장란형토기, 우각형파수부 주구토기, 우각형파수부 시루, 경부돌대호(대경호)(박순발 2001), 심발형토기 등 이 지역의 마한계 토기들과 1~2점의 영남계 신라조기양식토기가 공반되었다. 신라조기양식토기는 노형기대의 대각과 통형고배, 대·소 단경호이며, 그중 단경호들은 고화도로 소성된 회청색 경질토기들이다. 이 지역의 마한계 토

³⁾ 평지리 2호 석곽묘에서는 북쪽 단벽 아래에 토기들이 동과 서의 두 그룹으로 배치되었는데, 동쪽 그룹은 앞의 4a기와 4b기로 편년한 직립구연합, 그리고 뒤의 <그림 17>의 3. 진안 평지리 2호 석곽묘 출토 토기 중 좌측 3개였고, 서쪽 그룹은 4c기로 편년한 토기들과 편구형 대부병에 뚜껑처럼 덮여 나온 <그림 17>의 3. 우측의 외반구연합이었다. 평지리 2호 석곽은 바닥에 남은 시상과 토기의 배치로 보아 처음 매장 후 1회의 추가장이 이루어진 고분으로 동쪽이 선, 서쪽이 후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먼저 매납된 동쪽 그룹의 토기도 형식은 4a기와 4b기로 차이가 있고, 서쪽 그룹에서 편구형 대부병에 덮여 나온 외반구연합은 기고가 높아 4c기로 편년한 외반구연합보다 이른시기 형식이다. 편구형 대부병에 덮여 나온 외반구연합은 4a기의 평지리 3호 석곽묘 출토 외반구연합과 거의 같은 형태이나 기벽이 약간 낮아져 4b기로 편년될 수 있는 것이다.

기들과는 기종이 다르고, 제작법에서도 차이가 크다. 그러므로 임실과 전주지역의 이 토기들은 영남지방의 신라조기양식토기 분포권으로부터 이곳의 취락으로 이입된 것이다.

앞에서 임실과 전주지역 취락유적의 주거지들에서 출토된 영남계 토기들은 신라조기양식토기 2a기와 2b기 형식부터 신라전기양식토기 1Aa기로 내려오는 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경주를 비롯한 영남지방의 신라조기양식토기 연대는 2a기 : 서기 3세기 말・4세기 초, 2b기 : 서기 4세기 전엽, 신라전기양식토기 1Aa기는 서기 4세기 중엽의 이른 단계로 연대가 설정된다.

그러나 이 토기들이 영남지방에서의 상대편년 순서와 연대 그대로 이 지역의 주거지들에 이입되고 폐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임실 석두리 IV -20호 주거지에서는 타날문 구형단경호가 2a기 형식과 2b기로 내려오는 형식이 공반되었고, 도인리 19호 주거지에서도 2b기 형식의 노형기대 대각과 신라전기 1Aa기 이후의 타날문 구형단경호가 공반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토기들이 전북지방의 주거지들에서 사용되고 폐기된 연대는 이 지역 자체의 고고학자료 연대에 따라야 한다.

필자는 이 지역의 고고학자료에 대한 지견이 없고, 더욱 이 지역 토기들의 연대관에 대한 견해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공반토기들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1>를 작성해 보았는데, 이 지역의 토기 중 우각형파수부 주구토기의 기고, 즉 깊이와 파수의 형태 변화, 시루의 파수 형태와 증기공의 변화, 경부돌대호(대경호)의 기형 변화에 유의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림 11>에 따르면 이 지역의 주거지들에서 신라조기양식토기는 2a기 형식과 2b기 형식, 2b기 형식과 신라 전기 1Aa기 형식이 지역 토기들과 공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의 신라조기양식토기 연대관을 적용할 때 영남계 토기들은 4세기 전엽과 중엽의 이른 단계에 이 지역으로 이입되어 지역토기들과 공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남지방에서 신라조기양식토기의 분포권은 현재까지 대구 이남, 진주-합천 삼가 이동이어서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방과 맞닿아 있지 않았다. 그 분포권은 신라전기양식토기 1A(a, b)기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지방 취락유적에서 출토되는 신라조기양식토기는 극히 소수이고 기종도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토기들의 이입에 특별히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지역간의 교류나 교역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김낙중 2021).

전북지역에서 출토된 신라조기양식토기들은 함안지역의 고분과 토기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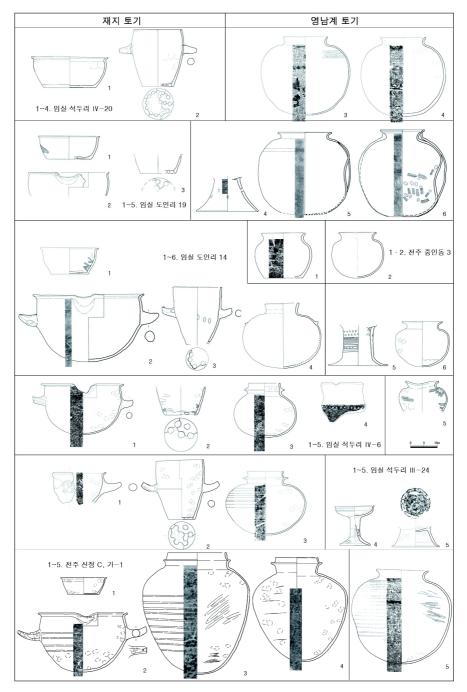


그림 11. 전북지방 유적의 신라조기양식토기 공반 양상

등 대개 낙동강 이서지역의 유적 토기들과 가깝다. 그것은 지리적인 위치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그것이 전북지방에서는 임실과 전주지역으로 이어 진 것이 유의된다. 낙동강의 황강수계를 통한 것인지 남강 수계를 통한 것인 지, 교통로를 찾아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신라 전기

장수와 진안지역의 석곽묘에서 낙동강 이동양식에 속하는 신라계 고배나 장 경호가 몇 점 출토된 예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가야토기나 가야계 토기와 백 제계 토기가 부장된 석곽묘에서 출토되었다. 가야계 고분의 전북지방 조영과 함께 낙동강 이동의 지방에서 이입된 토기들이라 판단된다.

전북지방에서는 경북 김천과 경계를 접한 무주지역에서 신라전기양식토기가 부장된 신라고분군이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주 현내리고분군에서는 일단의 신라토기가 출토되었는데(곽장근 1999 : 91), 대개 4b기의 신라전기양식토기들이다. 그보다 서쪽 무주 대차리에 신라고분군이 조영되었고, 그 중 10여기의 석곽묘가 발굴조사되었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0).

무주 대차리의 석곽묘는 길이 2m를 상회하는 석곽과 그 이하 1m를 약간 넘는 소석곽으로 구분되지만(그림 12), 파괴가 심하게 진행되어 잔존상태도 불량하며, 석곽묘의 형태나 구축방법에서 따로 지역적 특징을 살피기는 어렵다. 부장유물은 주로 토기들이고 약간의 철기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다지 위계가 높은 고분군은 아니다.

토기들은 대개 신라 중앙의 원신라양식을 모델로 제작되었으나, 1호 석곽묘의 고배, 9-3호 석곽묘의 대부장경호는 그와는 다른 지역양식으로 보인다. 그중 9-3호 석곽묘의 대부장경호가 무주와 경계를 접한 김천의 성내동고분에서 출토된 대부장경호와 함께 경부에서 구연부가 꺾여 외반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 점이 유의된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0 : 209). 신라가 무주지역으로 진출한 방향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발굴된 토기들의 편년으로 보아 대차리고분군은 신라 전기 3b기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여 고분 축조가 신라 후기 1a기까지는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무주지역에서는 신라 전기의 늦은 시기부터 신라고분군이 조영되기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주지역에서 신라고분군의 조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 전기 영남지방의 고고학자료 분포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남지방에서는 신라조기양식토기와 가야조기양식토기에 이어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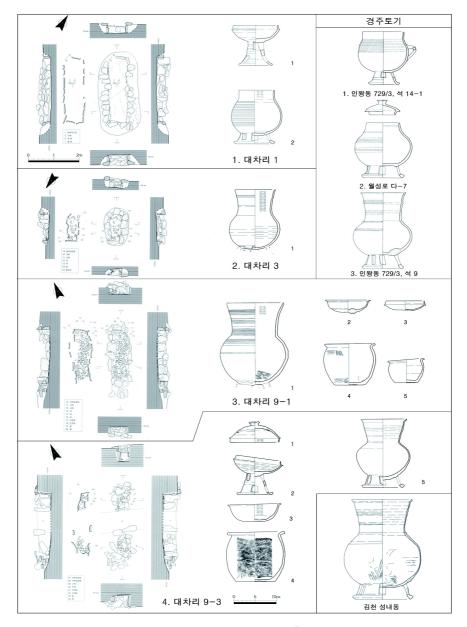


그림 12. 무주 대차리 석곽묘와 출토유물

주와 김해지역에서 신라전기양식토기와 가야양식토기가 각각 성립하였다. 신라전기양식토기와 가야양식토기가 성립한 시기는 일본 고분시대 初期須惠器 TG232 형식의 연륜연대 서기 389년에 의해 서기 4세기 중엽으로 비정된다. 일본 初期須惠器 TG232 형식에는 신라전기양식토기 1Ba기 토기 중에서는 신

단계로 편년되는 동래 복천동 21·22호묘 토기부터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에 앞서는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 복천동 35·36호묘와 31·32호묘 등 신라전기양식토기 1Ba기 고단계는 서기 4세기 후엽 초, 신라전기양식토기와 가야 양식토기의 출현기인 1A(a, b)기는 그에 앞서는 서기 4세기 중엽이 되기 때문이다(최병현 2019).

경주와 김해지역에서 성립한 신라전기양식토기와 가야양식토기 출현기, 즉 1Aa기 토기는 그 분포가 각각 경주지역과 김해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라·가야 조기 낙동강 이서지방은 낙동강 하구를 제외하고 진주-합천 삼가 지역까지 신라조기양식토기의 분포권이었고, 신라 전기 1A(a, b)기까지는 큰 변동 없이 신라조기양식토기 이래의 토기가 전개되고 있었다(최병현 2018).

그런데 1Ab기 말부터 낙동강 연안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낙동강이동의 창녕과 근접한 청도 봉기리에 김해 대성동 1호묘 등 1Ab기 형식에 가까운 가야양식토기가 부장된 석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하여, 1B(a~c)기가 되면가야양식토기 부장 석곽묘의 분포는 청도 송서리, 창녕 동리까지 확대되었다. 아울러 낙동강을 따라 북상하여 칠곡 심천리고분군과 경산 임당고분까지 가야양식토기의 분포가 이어졌다(최병현 2021b).

이와 같이 가야양식토기는 낙동강을 따라 북상한 반면, 그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신라전기양식토기가 남하하여 김해 중심부를 둘러싸고 분포하기 시작하여 이윽고 김해 중심부까지 확대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즉 신라 전기 1B기에들어와 고 김해만에서 낙동강으로 진입하는 입구의 김해 예안리유적과 그 남쪽 섬에 위치하였던 칠산동유적에서 신라전기양식토기가 분포되기 시작하고, 김해 서쪽의 창원 도계동유적, 마산 합성동유적 등에서도 신라전기양식토기가 가야양식토기와 함께 부장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a기부터 김해의 가야 중심고분군인 대성동고분군의 부장토기도 신라전기양식토기 중심으로 전환되고, 2b기에는 신라전기양식토기가 부장토기의 중심이 된 대성동 73호 수혈식석과 묘가 축조되었다(최병헌 2021b).

신라전기양식토기와 가야양식토기의 성립 후 일어난 이와 같은 영남지방 고고학자료의 분포 변화를 신라·가야고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안 광개토왕 대왕비의 경자년조에 기록된 서기 400년 고구려군 남정의 결과로 해석한다(최종규 1983; 신경철 1985). 이른 바 '풍소불묘 최고 등자설'에 기반한 '고구려군 남정영향설'이다(최병현 2014). 이에 따라 심지어 청도와 창녕지역에서 출토되는 가야양식토기 일렬투창고배를 창녕양식 일렬투창고배라고 하고, 김해

지역에서 출토되는 일렬투창고배들도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창녕지역에서 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박천수 2019).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고고학자료의 잘못된 편년, 특히 오도된 연대관이 고고학자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남지방에서 신라전기양식토기와 가야양식토기 성립 직후의 고고학자료 분포 변화가 있을 무렵 정치적 격변을 의미하는 사건은 서기 400년 고구려군 의 남정뿐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도 있었다. 『日本書紀』「神功紀」 神功攝政 49년조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49년 봄 …… 모두 卓淳에 모여 신라를 쳐서 깨뜨렸다. 그로 인하여 比自 体,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의 일곱 나라를 평정하였다 ……"⁴)

뒤에 "거듭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古奚津에 이르러 南蠻 忱彌多禮를 잡아 백제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이어진 이 기록을 학계에서는 紀年을 조정하고 주체를 변경하여, 왜가 아니라 백제가 서기 369년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군사활동을 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세이다. 즉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위 기록에서 격파된 신라를 신라의 중심부인 경주로 해석해 왔고, 이 기록을 지금도 일반적으로 '가야칠국 평정기사'라고 한다. 그러나 원문은 그냥 '칠국평정'이지 '가야칠국' 평정이 아니다. 여기에 김해의 남가라, 고령의 가라가 들어있지만, 이는 평정 당시의 국명이 아니라 그보다 후대의 국명을 기록에 올린 것이다.5) 또 군사가 탁순에 모여 신라를 쳐서 깨뜨렸는데, 이로 인하여 평정된 것이 김해의 남가라를 포함한 칠국이라는 것으로,이때 깨뜨린 신라는 신라의 중심부 경주가 아니라 신라의 지배하에 있었던 낙동강 연안의 정치세력들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신라전기양식토기와 가야양식토기가 성립된 이후 영남지방에서 정치적 격변을 가져온 사건은 두 차례, 즉 서기 369년의 백제 근초고왕 남정 과 서기 400년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군 남정이 있었던 사실을 문헌사료와 금석 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살펴본 영남지방 고고학자료의 분포 변화

⁴⁾ 四九年春……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 比自体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 七國 ……. 번역문은 金泰植 외, 2004, 『譯註 加耶史史料集成 -제1권 高麗以前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p.156~157에서 옮김.

⁵⁾ 金泰植 외, 2004, 『譯註 加耶史史料集成 - 利1 권 高麗以前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156 의 註 105), p.157 의 註 109).

와 관련시키면, 먼저 서기 369년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으로 김해지역의 가야 양식토기가 청도-창녕지역으로 북상하고 낙동강 이동의 일부 지역까지 일시 가야양식토기가 분포하게 되었으며, 이에 신라는 낙동강 하구로 남하하여 동과서에서 김해의 가야를 압박해오다 서기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김해의 중심부까지 신라전기양식토기의 분포권이 된 것이라 판단된다. 토기양식의 분포변화로 보아 서기 369년의 백제 근초고왕 남정은 김해의 가야와 연계된 사건이었으며, 서기 400년의 고구려군 남정은 신라를 조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신라조기양식토기의 분포권에서 벗어난 가야산 이남의 낙동강 이서지방에서는 여러 가야세력이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체, 각 지역에서는 김해지역에서 출현한 가야양식토기가 바탕이 된 낙동강 이서양식 가야토기, 곧 고령양식, 함안양식, 서부경남양식이 성립하여 그 분포권을 확대해 나간 것이다. 그리하여 서기 5세기 대에는 백두대간을 넘어 호남 동부지역까지 낙동

한편 가야산 이남의 낙동강 이서를 상실한 신라는 가야산 이북의 낙동강 이서를 포함하여 낙동강 이동의 영남 북부지역으로 진출하여, 신라가 지배한 낙동강 이동지방에서는 원신라양식인 경주의 신라전기양식토기를 모델로 하여범 낙동강 이동양식에 포함되는 각 지역양식이 성립되었다. 일시 가야양식토기가 분포하였던 창녕지역도 곧 회복하여, 창녕지역에서는 낙동강 이동양식에속하는 교차투창고배의 창녕양식 토기가 성립하였고, 창녕과 청도지역이 그분포권이 되었다(최병현 2021b).

강 이서양식 가야토기의 분포권이 된 것이다.

신라전기양식토기는 북상하여 1Ba기에 이미 백두대간(소백산맥)에 면한 상 주지역까지 분포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5세기 전엽에는 신라가 백두대간을 넘 어 보은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보은 삼년산성 주변 일대에 거 대한 고분군을 조영하였는데, 고분군에서 수집된 토기 중에는 신라전기양식토기 2b기 형식부터 존재하였다. 보은 신라 삼년산성의 대척점에는 백제의 대 지방고 분군인 청주의 신봉동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삼년산성고분군은 신라가 백두대 간을 넘어 중부지방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이곳에 마련하여 백제의 더 이상의 남하를 막아, 신라와 백제가 대치하고 있던 상황을 말해준다(최병현 2018).

이어 신라전기양식토기 3b기, 즉 5세기 후엽에는 삼년산성고분군의 동서로 신라고분군이 조영되었다. 충북의 옥천 금구리고분군, 청원 미천리고분군, 단 양 하방리·하리고분군, 백두대간(태백산맥) 정상인 강원도의 정선 임계리고 분군이 그들이다. 전북의 무주 대차리고분군도 이때부터 조영되기 시작한 것 이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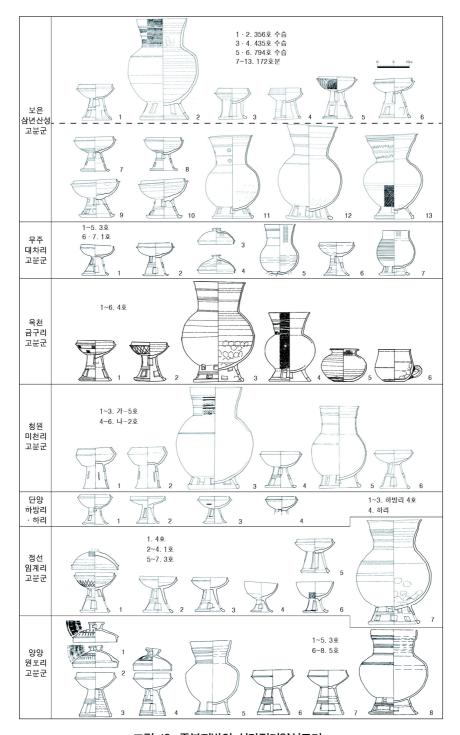


그림 13. 중부지방의 신라전기양식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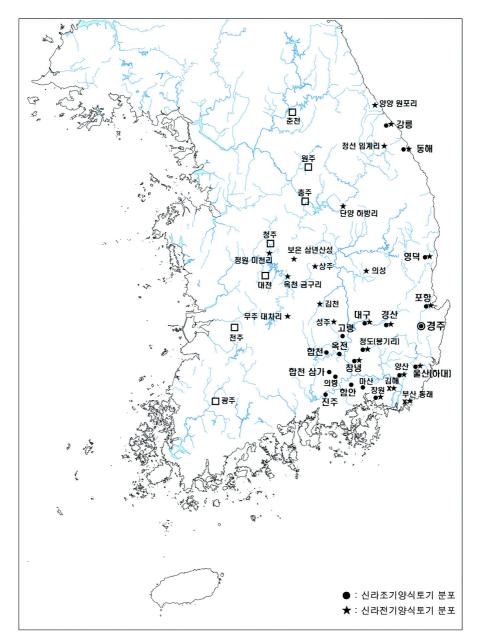


그림 14. 신라조기·전기양식토기의 분포

5세기 후엽에 이와 같이 전북 무주와 중원지방에 신라고분군이 조영되기 시작한 것은 서기 475년 고구려군의 백제 한성 함락으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당시의 정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부터 웅진으로 천도한 서쪽

의 백제와 대치한 경계선에 위치하여 청원 미천리-옥천 금구리-무주 대차리의 신라고분군이 조영되기 시작한 것이며, 그 동쪽으로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 구려와 대치한 경계선을 따라 보은 삼년산성-단양 하방리·하리-정선 임계리 에 신라고분군이 조영된 것이다(그림 14).

전북지방에서는 서기 5세기 이후 가야계 고분이 조영된 진안-장수-남원지역의 북쪽 무주지역에서 5세기 후엽에 들어와 대차리고분군을 비롯한 신라 고분군이 조영된 것이 유의된다. 신라 고분군 조영 이전 원삼국-삼국시대 이 지역에서는 어떤 고고학적 문화가 전개되었는지 궁금하다.6)

3) 신라 후기

전북지방에서 신라후기양식토기 출토 유적은 1~2기의 단각고배 단계와 3기 이후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신라 전기고분부터 축조된 무주 대차리고분 군에서 단각고배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그 6호 석곽묘가 신라후기양식토기 1a 기로 내려오는 것임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대차리고분군에서 그 이후 신라 후 기고분도 조영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대차리고분군 다음으로는 진안 과 남원지역에서 단각고배 단계의 신라후기양식토기가 매납된 고분이 조사되었다(그림 15).

용담댐 수몰지구에 위치한 진안군 삼락리 승금 B유적과 C유적에서는 단각고배 단계 신라 후기 고분군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그 중 B유적에서 1기, C유적에서 1기의 횡구식석곽분이 발굴되었다(全北大學校博物館 2001). 승금 C-1 호분의 석곽은 영남지방에서 신라 전기부터 축조되어 온 수혈식석곽에서 발전한 장방형 횡구식석곽이지만, 승금 B-1호분의 석곽은 영남지방에서 신라 후기에 들어와 출현하여 중부지방으로 확산된 근방형의 횡구식석곽이다.

앞에서 그 출토 토기를 편년하였듯이 승금유적에서 발굴된 신라 석곽분에는 신라후기양식토기 1b기 형식부터 2a기 형식까지 부장된 것이 확인되지만, 고 분군에서 채집된 토기 중에는 그보다 늦어 2d기로 편년되는 부가구연장경호까 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승금유적이 단각고배 단계의 전 기간, 즉 6세기 후반 에서 7세기 전반기까지 고분 축조가 이어진 신라 후기고분군임을 말해준다.

⁶⁾ 무주 현내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신라토기와 함께 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곽 장근 2021 : 121). 무주지역에서는 신라고분군의 조영에 앞서 백제고분이 축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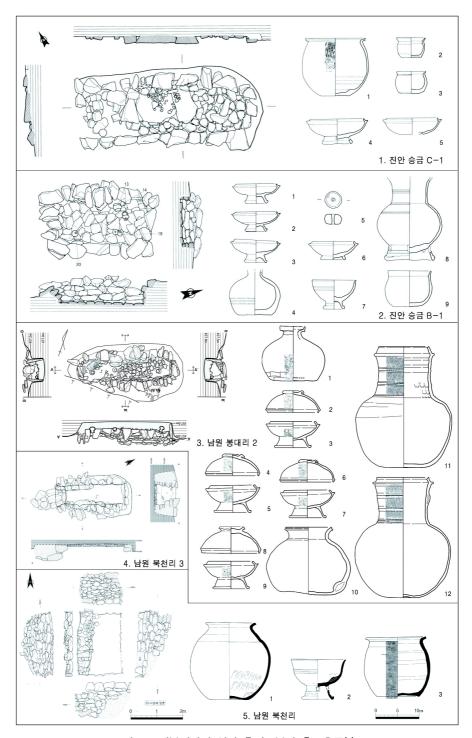


그림 15. 전북지방의 신라 후기고분과 출토유물(1)

다음 남원지역에서는 동쪽에서부터 아영 두락리 2호 석실분(전북대학교박물관 1989), 아영 봉대리(호남문화재연구원 2013)와 운봉 북천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석곽묘에서 신라후기양식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는 아영 봉대리 2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4점의 단각고배(A)와 1점의 평저병이 신라후기양식토기 1b기 형식을 모델로 하여 현지화 한 것이지만 형식상 가장 이른 것이다. 봉대리유적에서는 모두 8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는데, 대개 고령양식과 서부경남양식의 가야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2호 석곽묘에서도 가야계 토기들과함께 신라후기양식토기인 단각고배와 평저병이 출토된 것이다.7) 그러므로 봉대리 석곽묘군이 본격적인 신라 후기고분군으로 조영된 것은 아니다.

아영 두락리·유곡리고분군은 널리 알려진 가야고분군으로, 2호 석실분은 그 구조가 합천 저포리 DI-1호분과 같은 대가야계 말기의 횡혈식석실분으로 판단된다. 석실 안에서 고배 뚜껑 1점이 출토되었다. 높이나 드림부의 형태로보아 신라후기양식토기 1c기의 단각고배 뚜껑이다.

가장 서쪽의 운봉 북천리고분군에서는 모두 9기의 고분 존재가 확인되어 그 중 3호분을 조사하였는데, 3호분의 매장주체는 장방형의 횡구식석곽이었고, 그 동쪽에서 근방형의 횡구식석곽 1기가 더 발굴되었다. 근방형 석곽에서 출토된 대부완, 단경호, 발형토기 중 대부완은 대각의 형태로 보아 신라후기양식토기 2b기 이후 형식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봉대리고분군은 신라 후기의 장방형과 근방형 석곽분으로 이루어진 신라 후기고분군으로 판단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신라는 백제와 합동 작전으로 서기 551년 남한강 상류지역을 수중에 넣고, 553년에는 백제가 회복한 한강 하류역을 차지하였다. 이어 562년에는 낙동강 서쪽의 대가야까지 통합하였다. 이와 같이 6세기 중엽 신라가 진출한 한반도 중부지방과 고 가야지역에서는 단각고 배와 부가구연장경호를 부장한 신라 후기고분군이 조영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진안과 남원지역의 단각고배 단계 신라후기양식토기와 그 출 토 고분은 신라가 6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백두대간(소백산맥)을 넘어 무주 이 남의 전북지방으로도 진출한 사실을 보여준다. 진안 승금유적은 무주 대차리 보다 약간 서쪽에 위치하여, 신라는 6세기 후반에 이곳에서 좀 더 서진한 것을

⁷⁾ 봉대리 2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가야계 토기와 신라후기양식토기는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굴보고서의 토기 출토 장면 사진에 의하면 가야계 토기는 석곽의 흙바닥에서 출토되었고, 신라후기양식토기는 흙바닥 위에 돌을 깔아 조성한 시상석 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분의 재사용 가능성이 있다. 가야 석곽묘를 개조하여 신라 후기에 재사용한 예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 다수 조사된 바 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대동문화재연구원 2020).

알 수 있다. 남원지역의 신라후기양식토기 출토 고분들은 신라가 낙동강 서쪽의 가야세력들을 통합한 이후 이 지역까지 장악한 사실을 의미하는데, 가장서쪽의 운봉 북천리고분군은 신라가 이곳까지 진출한 사실을 보여준다.

단각고배 단계의 신라후기양식토기를 부장한 신라 후기고분군은 안성천 이남에서 북쪽의 진천 교성리(충북대학교 중원문화재연구소 2002), 대전 주산동 (충남대학교박물관 1978), 금산 장대리(한남대학교박물관 1992), 그리고 그 남쪽으로 진안 승금유적과 남원 운봉의 북천리로 이어져 있다. 신라가 서진하여사비기 백제와 대치하였던 경계선에 조영된 고분군들이라 판단된다(그림 16). 한편 남원 아영의 아막성에서는 유개식고배와 무개식고배의 대각 등 신라후기양식토기 1c기 형식을 시작으로 그 이후의 신라후기양식토기들이 출토되었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0). 아막성은 신라가 새로 진출한 남원지역활동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장수의 침령산성에서도 '그은 삼각문'과 '찍은 2중원문'이 시문된 토기 뚜껑편이 출토되었다(군산대학교박물관 2017 : 177). 이 토기 무늬는 신라후기양식토기 2a기에 출현한 것이다. 침령산성에서그 이후의 신라계 토기로는 나말여초양식토기만 보여 불확실한 점이 있지만,일단 신라가 6세기 후반에 장수의 침령산성에도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과 같이 신라가 중부지방으로 진출하고 낙동강 서쪽의 가야세력을 통합한 6세기 후반기에, 신라는 전북지방에서도 백두대간 서쪽의 산성들을 거점으로 사비기 백제와 대치하면서 그 경계선을 따라 신라 후기고분군을 조영하였다. 그러나 5세기부터 가야고분군이 조영된 장수지역에서는 아직 신라 후기고분군이 조사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후기양식토기 3기 이후의 고분유적에 대해 살펴보면, 신라의 삼국 통일 직전인 3a기로 편년되는 남원 월평리 수월유적은 아영, 운 봉의 서북쪽으로 임실에 가깝다. 통일 직전 신라 세력이 좀 더 서쪽으로 진출 한 것을 의미한다.

신라후기양식토기 3b기 이후, 즉 통일신라기의 토기가 매납된 석곽묘는 전 북지방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조사되었다. 소석곽은 수혈식이지만, 조금 규모 가 있는 것은 횡구식이다(그림 17). 앞의 토기 편년표에서 보듯이 전북지방에 서 통일기 신라 석곽묘는 동쪽이나 북쪽 등 그 조영 시기나 순서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 삼국 통일 이후 여기저기서 시차 없이 신라의 고분문 화를 수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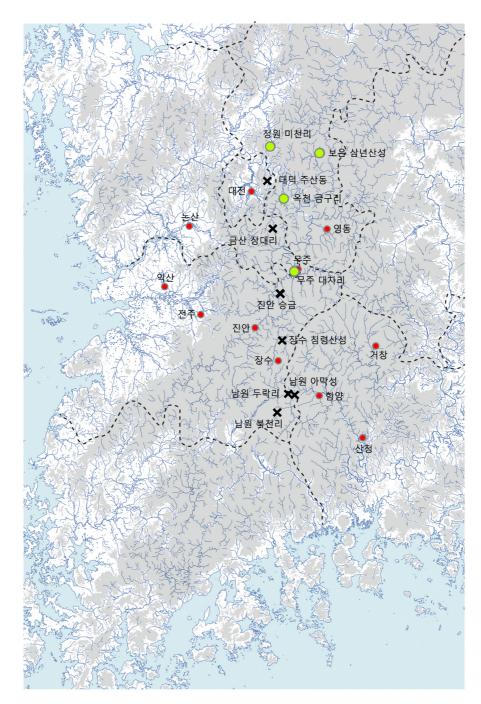


그림 16. 전북지방의 신라 후기 고분군과 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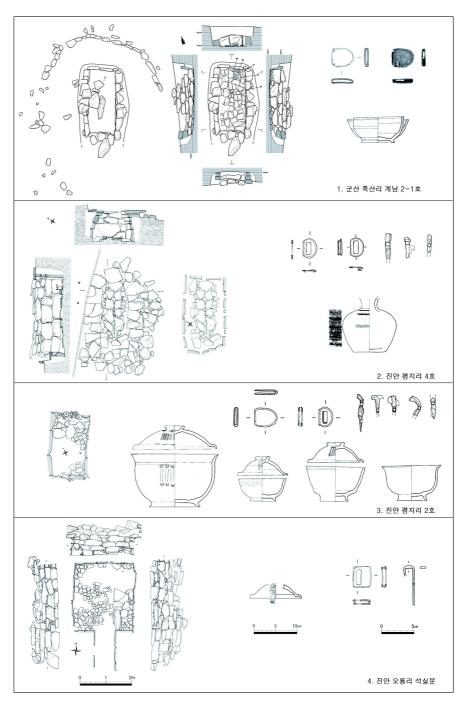


그림 17. 전북지방의 신라 후기 고분과 출토유물(2)

그 중 군산 축산리유적에서는 4기의 석곽묘(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진 안 평지리유적에서는 가지구에서 1기, 인접한 나지구에서 6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어(군산대학교박물관 1998) 소군집 현상을 볼 수 있지만, 석곽묘는 모두 통일신라기의 왜소해진 지방고분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와 같은 통일신라기의 지방고분으로는 충북 청주 용담동・용암동 일대에서 수십기, 그 외 경기도 하남 덕풍골과 광암동, 원주 반곡동 등에서 석곽묘군이 조사된 바 있다. 대개 신라의 小京이나 州治 등 행정치소가 있었던 곳이다.

지방의 통일신라기 석곽묘에서는 당식과대가 오래까지 매납되었는데, 진안 평지리 2호와 4호, 군산 축산리 계남 2-1호 석곽묘에서도 당식과대의 부속구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지방의 이러한 통일신라기 석곽묘는 신라의 지방 지배체제에 속한 지방 출신 하급관료들이 그 주인공이었다고 판단된다(최병현 2011).

한편 진안 오룡리에서는 연도를 남쪽으로 둔 평면 방형의 중앙연도 석실분 1기가 발굴조사되었다(군산대학교 박물관 2001). 석실 내부의 규모는 동서 2.38m, 남북 2.55m로 평면 형태로 보아 천정은 궁륭상이었을 것이다. 석실 내에서 유개합 뚜껑편과 청동제 당식과대편, 청동제 뒤꽂이가 나왔으며, 유개합 뚜껑편은 스자형 찍기의 종장점열문이 시문되었으나 구연부의 안턱이 거의 소멸된 것으로 보아 신라후기양식토기 4b기로 편년된다.

진안 오룡리 석실분은 그 형식과 규모로 보아 경주지역의 1랭크 석실에 가 깝다(최병현 2012; 2021a: 733~738). 통일신라기의 지방고분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피장자는 경주로 귀장하지 못한 중앙귀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유의된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호남의 전북지방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와 발굴조사된 신라고분을 통해 신라의 전북지방 진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신라 조기는 전북지방과 영남의 신라조기양식토기 분포권이 떨어져 맞닿아 있지 않았지만, 대개 서기 4세기 전엽과 중엽의 낙동강 이서지역 신라조기양식토기 소수가 임실과 전주지역의 마한계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교류·교역에 의해 이입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이동 교통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신라 전기는 전북 동부지역에 가야계고분이 축조되는 시기로, 장수와 진안지역의 석곽묘에서 소수의 신라계 고배와 장경호가 가야토기들과 공반되었다. 역시 신라의 진출과는 무관하게 이입

된 토기들이라 판단된다.

전북지방에서 처음 직접적으로 신라의 진출을 보여주는 유적은 무주 대차리고분군이다. 발굴조사 자료로 보아서는 서기 5세기 후엽부터 고분군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는 고구려군의 백제 한성 함락으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할 무렵이다. 청주의 백제 대 지방고분군인 신봉동고분군과 대치하여 백두 대간을 넘어 서기 5세기 전엽경부터 충북 보은에 삼년산성고분군을 조영하고 있던 신라는 이때 그 동서로 진출하여 웅진 백제와 경계선에, 그리고 남하하는 고구려와 대치선에 신라고분군을 조영하였다. 무주 대차리고분군도 이때부터 조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서기 6세기 중엽 신라는 한강 하류까지 진출하고 낙동강 이서의 가야세력을 통합하였다. 이때 가야계 고분이 조영되고 있던 호남 동부지역도 신라의 영역이 되었으며, 신라는 조금 더 서진하여 진안의 승금유적과 남원의 운봉 북천리에 단각고배 단계의 고분군을 조영하였다. 남원 아막성과 장수의 침령산성은 그 배후에 위치한 군사활동의 거점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세기 후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전북지방에서는 여기저기에 소규모의 신라 석곽묘가 축조되었다. 그 중에서는 진안 평지리유적과 군산 계남리유적에서 당식과대가 매납된 석곽묘을 포함하여, 고분이 소 군집을 이루어 주목된다.

이상이 앞에서 살펴본 내용의 요약이지만, 지금까지 전북지방에서 신라계 유적의 발굴조사는 극히 미미하다. 그것은 물론 유적의 분포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관심과 주목이 먼 탓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균형잡힌 지역사의 정립을 위해서는 전북지방의 신라계 유적 발굴조사와 연구도 필수적이다.

논문접수일: 2022. 02. 28. / 심사개시일: 2022. 03. 28. / 게재확정일: 2022. 04. 06.

참고문헌

<논저>

- 郭長根, 1999,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研究』, 書景文化社.
- 곽장근, 2021, 『전북 고대문화 역동성』, 서경문화사.
- 宮川禎一, 1988, 「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 『高井悌三郎喜壽記念論集』, 高井悌三郎喜壽記念事業會.
- 김낙중, 2021, 「섬진강유역의 백제와 가야」, 『백제는 언제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 金元龍,1979,「古新羅の土器と土偶」, 『世界陶磁全集』 17, 小學館.
- 朴淳發, 2001、「帶頸壺一考」、『湖南考古學報』 13、湖南考古學會.
- 박천수, 2019, 『非火加耶 비화가야』, 진인진.
- 박천수, 2000, 「고고학으로 본 가라국사」, 『가야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가야사 정책연구위원회.
- 邊永煥, 2007, 「羅末麗初土器研究-保寧 眞竹里遺蹟 出土遺物을 中心으로-」, 석 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 山本孝文,2007,「印花文土器의 發生과 系譜에 대한 試論」,『嶺南考古學』 41, 嶺南考古學會.
- 申敬澈, 1985, 「古式鐙子考」, 『釜大史學』 9, 釜山大學校史學會.
- 申敬澈, 2012, 「陶質土器의 발생과 확산」, 『考古廣場』 11권, 89-117쪽.
- 尹相悳, 2010,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 편년」,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 도-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安在皓, 宋桂鉉, 1986, 「古式陶質土器에 관한 약간의 考察-義昌 大坪里 出土品을 通하여-」, 『嶺南考古學』 1호, 17-54쪽.
- 安在皓, 1994, 「三韓時代 後期 瓦質土器 編年-下垈遺蹟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 14, 嶺南考古學會.
- 安在皓, 2000, 「慶州地域の初期新羅土器の檢討」, 『福岡大學總合研究所報』 240, 福岡大學總合研究所.
- 呂熙珍, 2019, 「3~4세기 영남지방 노형기대의 전개-조기 신라·가야토기의 지역 성과 그 의미-」, 『崇實史學』 42권, 27-79쪽.
- 이경희, 2021, 「전북지역 통일신라시대 분묘 출토 토기의 성격과 의미」, 석사학 위논문, 전북대학교.

- 李東憲, 2008, 「印花文 有蓋盌 研究 -慶州地域 出土遺物을 中心으로-」, 석사학위 と 光・、釜山大學校.
- 李盛周, 1999, 「辰•弁韓地域墳墓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 24권, 1-55쪽.
- 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정주희, 2009, 「咸安樣式 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과 意味」, 『한국고고학보』 73권, 4-51쪽.
- 崔秉鉉, 1984,「皇龍寺址出土 古新羅土器」,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 崔秉鉉, 1987,「新羅 後期樣式土器의 成立試論」,『三佛 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 念論叢 I』,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 최병현, 2011, 「신라 후기양식토기의 편년」、 『嶺南考古學』 59권, 111-174쪽.
- 崔秉鉉, 2011, 「한국 고분문화의 양상과 전개」, 『동아시아의 고분문화』, 중앙 문화재연구원.
- 최병현, 2012, 「신라 조기양식토기의 설정과 편년」, 『嶺南考古學』 63권, 105-156쪽.
- 최병현, 2012, 「경주지역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계층성과 고분 구조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83권, 80-129쪽.
- 최병현, 2013,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성립」, 『고고학』 12권 1호, 5-58쪽.
- 최병현, 2014, 「5세기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편년과 신라토기 전개의 정치적 함의」, 『고고학』 13권 3호, 159-229쪽.
- 최병현, 2014, 「초기 등자의 발전」, 『中央考古研究』 14권, 1-57쪽.
- 최병현, 2018, 『진·변한에서 신라·가야로의 전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學術院論文集』 57-1, 大韓民國學術院.
- 최병현, 2019, 「신라 전기고분의 편년자료와 황남대총의 연대·피장자」, 『崇實 史學』 43권, 33-76쪽.
- 최병현, 2021a, 『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최병현, 2021b, 『신라토기의 성립과 전개』, 대한민국학술원.
- 崔鍾圭, 1982, 「陶質土器 成立前夜와 展開」、『韓國考古學報』 12권, 213-243쪽.
- 崔鍾圭, 1983,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 7권, 1-45쪽.
- 洪潽植,2000,「新羅後期樣式土器斗 統一樣式土器의 研究」, 『伽耶考古學論 叢』 3,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발굴보고서>

群山大學校博物館, 1998, 『鎭安 平地里 古墳群-1997年度 發掘調査-』.

群山大學校博物館, 2001, 『鎮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V』.

群山大學校博物館, 2001, 『鎭安 五龍里 古墳群』.

군산대학교박물관, 2011, 『임실 도인리유적』.

군산대학교박물관, 2017, 『장수 합미·침령산성 I』.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0a, 『무주 대차리 고분군』.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0b, 『남원 아막성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大東文化財研究院, 2020, 『高靈池山洞大加耶古墳群 I』

釜山大學校博物館, 1993, 『金海禮安里古墳群 II』.

嶺南文化財硏究院, 2006, 『고령 지산동고분군』 $I \sim V$.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임실 석두리유적』.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중동C·수랑골A·신정C유적』.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남원 운봉 북천리고분』.

全北大學校博物館,1989,『斗洛里』.

全北大學校博物館, 2001a, 『鎮安 龍潭诏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查 報告書 Ⅱ』.

全北大學校博物館, 2001b, 「장수 봉서리 고분」, 『遺蹟調査報告書』.

군산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2001, 『桃岩里』.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全州 中仁洞 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益山 西豆里 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淳昌 昌申·乾谷·外伊里遺蹟 南原 坪村里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2018, 『全州 萬成洞·如意洞遺蹟』.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군산 축산리 계남유적-2구역-』.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長水 三顧里 古墳群-1~3호분-』.

忠南大學校博物館,1978,『大淸母水沒地區發掘調査報告 <忠淸南道篇>』.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2, 「鎭川 校成里 發掘調査 報告書」, 『오창~진 천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 文化遺蹟 試掘·發掘調査報告書』.

韓南大學校博物館,1992,『錦山場垈里古墳群』.

湖南文化財研究院, 2011, 『高敞 芙谷里 甑山遺蹟 Ⅱ』.

湖南文化財研究院, 2013a, 『南原 奉大里古墳群』.

湖南文化財研究院, 2013b, 『完州 雲橋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 2013c, 『전주 원만성유적Ⅱ』.

<Abstract>

Examining Silla's Expansion into the Jeonbuk Region from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Choi Byung Hyun*

The Honam region experienced incursions by Silla prior to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but this topic has rarely been addressed within the archaeological community. This paper therefore examines the process of Silla's expansion into the Jeonbuk region from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During the Incipient Silla period (mid-third to early fourth century CE), the Jeonbuk region did not neighbor the Silla sphere of the Yeongnam region but a limited number of vessels of the Incipient Silla pottery style have been identified at Mahan settlements of Imsil and Jeonju.

Around the time that the capital of Baekje was relocated to Ungjin following the fall of Hanseong to Goguryeo forces in 475 CE, Silla's influence began to expand into the Jeonbuk region, with Silla tombs being constructed in parts of Muju that neighbored Gimcheon, which was part of Silla territory. With Silla's expansion into the Han River region and its consolidation of Gaya groups located to the west of the Nakdong River in the mid-sixth century, Silla tombs were also constructed in Jinan and Namwon, which had once been Gaya territory but now belonged to Silla.

The construction of Silla tombs in the eastern regions of Jeonbuk prior to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gradually spread westwards, but with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in the later half of the seventh century, Silla tombs came to be constructed simultaneously at numerous locations within the Jeonbuk region.

There has been a sore lack of attention on the Silla sites of the Honam region, resulting in a dearth of excavations. However, in order to formulate a well-balanced understanding of regional histories, further research and investigation into these Silla sites are required.

Key Words: Silla pottery, Gaya pottery, Silla tombs, Gaya tombs, Jeonbuk region

^{*} Professor Emeritus, Soongsil University